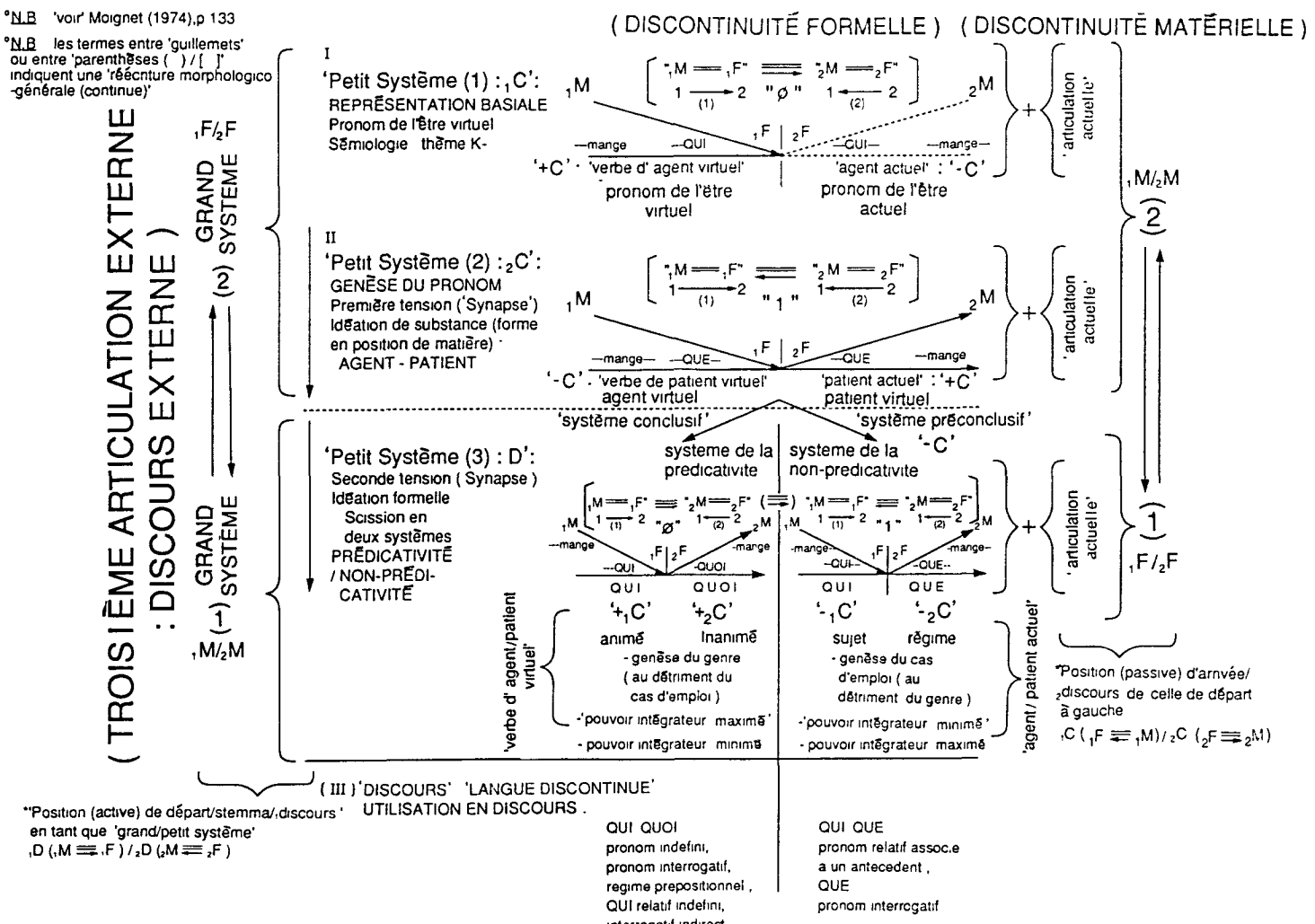

°N.B 'voir' Moignet (1974),p 133
°N.B les termes entre 'guillemets' ou entre 'parenthèses ( ) / [ ]' indiquent une 'rédécnture morphologico -générale (continue)'
(DISCONTINUITÉ FORMELLE) (DISCONTINUITÉ MATÉRIELLE)
(TROISIÈME ARTICULATION EXTERNE : DISCOURS EXTERNE)
GRAND SYSTEME (2) ₁F/₂F
GRAND SYSTÈME (-1) ₁M/₂M
I
'Petit Système (1) : ₁C':
REPRÉSENTATION BASIALE
Pronom de l'être virtuel
Sémiologie thème K-
'+C' · 'verbe d' agent virtuel' pronom de l'être virtuel
'agent actuel' : '-C' pronom de l'être actuel
II
'Petit Système (2) : ₂C':
GENÈSE DU PRONOM
Première tension ('Synapse')
Idéation de substance (forme en position de matière) ·
AGENT - PATIENT
'-C' · 'verbe de patient virtuel' agent virtuel
'patient actuel' : '+C' patient virtuel
'système conclusif'
'système préconclusif'
'Petit Système (3) : D':
Seconde tension (Synapse)
Idéation formelle
Scission en deux systèmes
PRÉDICATIVITÉ / NON-PRÉDICATIVITÉ
systeme de la predicativite
systeme de la non-predicativite
'articulation actuelle'
₁M/₂M (2)
₁F/₂F (1)
'+₁C' animé
'+₂C' Inanimé
- genèse du genre (au détriment du cas d'emploi)
-'pouvoir intégrateur maximé'
- pouvoir intégrateur minimé
'-₁C' sujet
'-₂C' régime
- genèse du cas d'emploi (au détriment du genre)
-'pouvoir intégrateur minimé'
- pouvoir intégrateur maximé
'verbe d' agent/patient virtuel'
'agent/ patient actuel'
°Position (passive) d'arrivée/ ₂discours de celle de départ à gauche
₁C (₁F ⇌ ₁M) / ₂C (₂F ⇌ ₂M)
°°Position (active) de départ/stemma/₁discours ' en tant que 'grand/petit système'
₁D (₁M ⇌ ₁F) / ₂D (₂M ⇌ ₂F)
(III) 'DISCOURS' 'LANGUE DISCONTINUE' UTILISATION EN DISCOURS .
QUI QUOI pronom indefini, pronom interrogatif, regime prepositionnel , QUI relatif indefini, interrogatif indirect
QUI QUE pronom relatif associe a un antecedent , QUE pronom interrogatif

BIBLIOGRAPHIE

박형달〈PAK〉(1987), 變形理論과 그 有形의 定立作業 〈La typologie des théories transformationnelles〉, *Language Research*(23-3), Language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pp.413-498.

_____(1988), 位置言語學과 統辭論 〈Linguistique de position et la syntaxe〉, *The Journal of Humanities*(20), Institute of Humanities, S. N. U., pp.175-237.

_____(1991), 核과 非核의 同形的 分析理論의 定立에 관하여 〈Vers une théorie synaptique (non arbitraire) de "nucléaire—non nucléaire": l'exemple de "personne et verbe"〉, *The Journal of Humanities* (26), pp.127-150.

_____(1993), 形態와 意味의 同形的 分析理論과 그 適用 〈L' analyse synaptique (non arbitraire) de forme/matière et son applic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29), pp.119-169.

_____(1994), 記號의 非恣意性과 文法體系〈Non Arbitrarité du Signe et Système Grammatical〉, *Seong-Kok Non-Tchong* (25), pp.1405-1535.

Culioli, Antoine(1990), *Pour une linguistique de l'énonciation-opérations et repré - sentations*, Tome 1, Ophrys, Paris.

Benveniste, É(1974),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Ⅱ*, Paris, Gallimard.

Guillaume, Gustave(1973), *Principes de linguistique théorique de Gustave Guillaume*,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Québec/Librairie C. Klincksieck, Paris.

_____(1970), *Temps et verbe, théorie des aspects, des modes et des temps,* Éditions Champion, Paris.

Toussaint, Maurice(1983), *Contre l'arbitraire du signe,* Didier, Paris.

Moignet, Gérard(1974), *Études de psychosystématique française,* Klincksieck, Paris.

_____(1981), *Systématique de la langue française,* Klincksieck, Paris.

Joly, André (1987), *Éssais de systématique énonciative,* P. U. L., Lille.

Chevalier, Jean Claude(1978), *Verbe et phrase*, Éditions Hispaniques.

Hewson, John(1974), French verb "to know", in *Studia Linguistica*, 28, pp.64-68.

Hirtle, Walter H.(1982), The challenge of polysemy, in *From Sign to Text : a Semiotic View of Communication,* edited by Yishai Tobin,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Amsterdam/Philadelphia, pp.135-141.

Piaget, Jean(1974/1994), *La formation du symbole chez l'enfant : imitation, jeu et rêve,*

image et représentation, Delachaux & Nestlé, Lausanne/Paris.

Théories du Langage / Théories de l'Apprentissage : le Débat entre Jean Piaget et Noam Chomsky, Organisé et Recueilli par Massimo Piatelli-Palmarini, 1979, Seuil, Paris.

Geneste, Phillippe (1987), *Gustave Guillaume et Jean Piaget : Contribution à la pensée génétique*, Klincksieck, Paris.

〈**Résumé**〉

L'Analyse Synaptique (Non Arbitraire) de Forme/Matière : Représentation Métalinguistique et Nominalisations en Français-Coréen

la terminologie *quillaumienne* et *moıgnetıenne*: "posse-fieri-esse/causation-opération-effection" (correspondant apparemment à notre "genèse-synaptisant-synaptisé") confond (n'analyse pas), "posse/causation" avec (et) "fierı-esse/opération-effection", autrement dit, leur analyse reste toujours dans le cadre de "esse/effection" sans consciemment définir la *positıon*: d'où vient que 1(a) analyse (distinctıon) de notre "genèse(I)/genèse(II)/genèse(III)", accompagnée, chacune, de "synaptisant/synaptisé", demeure dans l'indétermination, et que la notion de *genèse synaptıque* (non arbitraire/naturelle) de forme/matière reste impuissante ou négative; il est donc souhaitable que la position imprécıse qu'ımplique la terminologie tripartite de G et de M se soit incorporée à celle de naturel et analysé, c-à-d, au *mécanisme fondamental de l'ordre synaptique* décrit ci-dessus ; faute de quoi, elle *peut se trouver*, dépourvu de la *force de contrôle*, rester toujours à l'état de *mécannısme non analysé* et *juxtaposé* (*discontınu*) *subjectıf/arbıtraire*, autrement dit (en cas limite) à celui d'*artificıel*.

〈要 約〉

形態〈形相〉와 意味〈質料〉의 非恣意的 〈同形的〉 分析에 관하여*

—超〈Meta-〉言語的 表記와 韓-佛語의 名詞化를 중심으로—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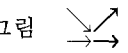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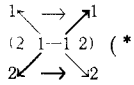
(* Piaget가 끈질기게 부정하는 Chomsky식 生得的 〈恣意的〉 固定核 noyau fixe inné, 즉 意味 〈質料〉를 중심으로 形態 〈形相〉가 等方向的으로 모여 있다고 보는, 다시 말해서 구체적·표면적 의미를 잠재적 의미로 誤認/錯覺하고 거기에서 형태를 등방향적·논리적으로 導出하는 傳統言語學的 관점들과는 대립되게, 의미와 형태를 '逆方向的 同形 〈모방〉의 조직' 〈즉 結構的 관점 constructivism〉으로 파악하는 脫傳統的 관점의 일환으로서의) Guillaume과 Moignet의 기본용어 즉 "잠재 posse → 과정 fieri → 결과 esse/起因 causation → 작용 opération → 결과 effection" 는—표면상으로는 우리의 "근원 genèse → 동형화 또는 변형요소 synaptisant → 피 동형화 또는 생성 요소 synaptisé" 와 대응되는듯 하지만 — 사실상으로는 "잠재/기인"과 "과정-결과/작용-결과"를 분석하지 않고 혼동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의 분석은 항상 "결과" esse/effection 의 테두리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자기의 위치를 의식 내지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결과로, 우리가 구분 내지 분석하는 "근원(Ⅰ)/근원(Ⅱ)/근원(Ⅲ)" 및 그에 각각 수반되고 있는 "동형화 또는 변형요소/피동형화 또는 생성요소" (*앞 그림 〈Table.1〉참조)는 미확정 상태에 머물게 되고 또 따라서 형태(형상)/의미(질료)의 (비자의적이고 자연스러운) '동형적 근원' genèse synaptique 이라는 개념은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채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G 와 M 의 삼분법적 기본용어가 담고 있는 정밀하지 못한 위치는, '재구성 작업'을 거쳐서, 자연스럽고 분석적인 위치 즉 우리가 위에서 기술한 "동형의 순서의 기본조직 mécanisme fondamental de l'ordre synaptique" 또는 "말의 순환 circuit de la parole" 속으로 병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만일에 그렇지 못할때는, 통제력의 결여로 말미암아, 언제나 비분석적이고 병치적 (불연속적)·주관적·자의적인 조직으로, 극단의 경우에는 '인위적'인 조직으로 침체상태에 빠지게 된다.

---

* 이 논문은 1994년 6월 2일 Córdoba (스페인)에서 개최된 第7次 國際 心理/精神力學 理論 言語學 大會(7me Collque International de Psychomécanique du Langage/The 7th International Colloquium of Psychomechanics of Language)에서 발표된 논문임

(二)

M./G.의 삼분법적 기본용어를 우리식 용어(*위 "〈-〉" 참조)로 바꿔 표기하면 그 대응은 다음과 같이 된다 즉 "(1) 근원 genèse(=기원 causation : C로 표기) → (2) 동형화 또는 변형요소 synaptisant(=결과 effection · E로 표기) → (3) 피동형화 또는 생성요소 synaptisé(=작용 〈기원/결과〉 opération <causative/effective> : OP<C/E>로 표기)", 이와 같은 '바꿈'의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가) Guillaume/Moignet의 그림  은, 우리의 "(3) 피동형화 또는 생성 요소 synaptisé" 즉 "동형의 순서 ordre synaptique : O.S. 로 표기" (Ⅲ), 즉 '대각선그림'  (*앞 그림 Table.(1) 대각선적 표기 Représentation diagonale : "Ⅲ A" 참조)에 비유될 수 있다 이때 화살표시 "→" 는 수평화적(=외부(화)적/구체(화)적/형태 〈F〉와 의미 〈M〉의 역방향(화)적 *이하 모두 같은 뜻으로 씀) 동형의 순서를 가리키며, '중앙'의 괄호 "( )" 안에 있는 숫자의 순서 "(2 · 1)〈의미 M · 형태 F〉→1 · 2 〈형태 F · 의미 M〉 (점 "·" 은 한데 뭉쳐 있음의 표시이고 화살 "→" 은 떨어져 있음의 표시)" 는 수평적으로 읽은 대각선의 네개의 각각의 점들의 동형의 순서와 같거나 그에 선행한다. 그 이유는 수평단계 즉 구체단계에서는, 후자 즉 대각선의 네개의 각각의 점들을 수평적으로 읽은 동형의 순서가 전자 즉 중앙의 괄호안의 숫자의 동형의 순서에 '흡수'/'피 일치'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G/M의 위 그림의 본질은 위 그림의 아랫부분의 화살표시 "→" 즉 Guillaume 자신이 그의 미간행 강의 "직관의 조직 Mécanique Intuitionnelle" 에서 "결과적 층위 niveau résultatif" 라고 말한 화살표시가 가리키는바와 같이, 본래가 '수평적'이다 따라서, 그 그림의 위 두 점은 수평적으로 좌에서 우로 읽힐 수 있으며, 밑의 화살표시 "→" 위에 배치되어 있다고 상정할 수 있는 숫자의 동형의 순서 즉 2 · 1 〈F · M〉 → 1 · 2 〈F · M〉은, 바로 위의 우리의 대각선 그림의 경우에서와 같은 이유로, 위 G/M의 準대각선 그림을 우리의 대각선 그림으로 취해서 그 대각선의 네개의 점을 수평적으로 읽은 동형의 순서와 같거나 그에 선행된다 .

나) 요컨대, 우리의 그림과 G/M의 그림을 '공통된 관점' 에서 비교하여 그 특징을 잡자면, 두 경우에서 모두, 본래 그 모양이 "형태적" 이었던 것 즉 대각선의 네개의 점에 놓인 항목들을 수평적으로 읽은 동형의 순서가 본래 "의미적" 이었던 동형의 순서 즉 대각선의 중앙/準대각선의 밑의 수평의 화살표시에 놓인 항목들의 동형의

순서로 '흡수'/'피 일치' 되어서, 후자(=본래의 의미적 동형의 순서)가 전자(=본래의 형태적 동형의 순서)와 같아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

다) 그러나 위의 비교를 그 '차이'에 초점을 두고 볼 때는, 우리의 경우에는 "형태"와 그것을 흡수하는 "의미" 간에 '완전한 합치 즉 일치' 가 존재하는 반면에, G/M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들 둘 사이에 언제나 '차질 즉 불일치' 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사실상으로는 '구체' 즉 '의미' 에서 시작하고 있으면서 '의미'보다 '형태'가 먼저라고 '주장'함으로써, "형태적 근원 genèse formelle" 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불일치" 라는 특징을 지닌 G/M의 용어 즉 "(1)기인 → (2)작용 → (3)결과" 를, 우리식 용어를 특징짓는 "수평적/일치적" 방식으로 즉 "(1)근원 → (2)동형화 또는 변형요소 → (3) 피동형화 또는 "생성요소" 에 대응되게. "(1)기인 →(2)결과 → 3)작용" 과 같이 고쳐서 사용한다. 이것은 곧 우리식 용어가 "외부적 언어표현 discours externe" 또는 "외부 통사론 syntaxe externe(1)/(2)" (*이 점에 관해서는 *앞 그림 Table.(1) : 대각선적 표기 Represéntation diagonale : (Ⅲ) 참조) 임에 반하여 G/M식 용어가 지닌 "불일치" 는 사실상은 "假 언어표현 pseudo-discours" 또는 "假 외부통사론 pseudo syntaxe externe(1)/(2)" 단계임을 발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된다. 이 假 단계의 특징은 "2 · 1 〈M ⇉ F 로 표기〉 = 외부 통사론 (1)/1 · 2 〈F ⇇ M 로 표기〉 = 외부 통사론(2)" (*역시 앞 그림(1) (Ⅲ) 참조)의 '비구분' 즉 '혼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재구 과정'을 거쳐서 "비 자의적이고 자연스러운 동형의 조직" 즉 "말의 순환" (*앞 그림 Table.(2) Circuit de la parole 참조) 의 조직의 가장 '구체적 단계' 로서의 "眞 외부 통사론(1)/(2)" = "외부 언어표현" 으로 병합 즉 재구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

마) 따라서 우리는 상/하의 수평적 두 항목의 略字로서 "〈C/E = 起/結〉" 및 "OP 〈C/E〉 = 作〈起//結〉" (또는 *앞 본문 . 韓 · 佛語의 一般形態論의 同形의 조직 Mécanisme Morphologic-Général en Français-Coréen 에서와 같이, $_1$St/$_2$St = $_1$指示/$_2$指示 및 $_1$Sé/$_2$Sé = $_1$被指示/$_2$被指示, 즉 $_1$變形/$_2$變形 및 $_1$生成/$_2$生成) 와 같이 표기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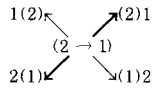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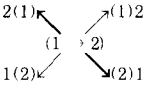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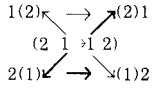
(三)

위와 똑 같은 생각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식 즉 (1) "$_1$U — ($_1$ø) → ($_2$S → $_1$S) — ($_2$ø)→ $_2$U" ; (2) : "$_2$U — ($_2$ø) → ($_1$S → $_2$S) — ($_1$ø) →$_1$U" ; (3) : "$_1$U — ($_1$1) → ($_2$S · $_1$S → $_1$S · $_2$S) — ($_2$1)

— $_2$U" (*이에 하여는 역시 앞의 "그림(1) 대각선적 표기" 참조. 이 그림에서는 (Ⅰ)/(Ⅱ)/(Ⅲ)의 각각의 "근원" ("A") 이 위 공식과 같은 순서로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 와 같 모양이 같은 G/M 식 공식 "$U_1 \rightarrow {}_1S_2 \rightarrow U_2$"를 다음과 같이 '고쳐서' "일반형태론의 조직" 을 표기하는데 사용한다. 두 공식을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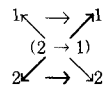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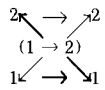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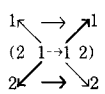
가) "假 외부 통사론(1)/(2)" 내지 "假 언어표현" 단계에 해당하는 G/M의 그림
〈"1/2" = "U(niversel)1 = 보편$_1$/U(niversel)$_2$ = 보편$_2$" . "3" = "$_1$S(ingulier)$_2$ = $_1$특수$_2$"〉 은 "수평적" 으로, 즉 위 "(二 라)" 와 똑 같은 이유로, "U_1(= 1 = C)→ U_2(= 2 = E)→ $_1S_2$(= 3 = OP〈C/E〉) 와 같이 읽힐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

나) 우리의 위의 세 공식은 G/M 식 공식과는 달리, "형태적 근원 genèse formelle" 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각각, 다음과 같이 "대각선 그림"에 대응된다 즉

(1)  ; (2)  ; (3)  *대각선의 네개의 점 위에 짝으로 된 숫자 "1/2" = "F 형태/M 의미" = "U/S" 는, 괄호 "( )"가 없느냐/있느냐에 따라서 동형의 순서 '먼저(근원) = "→" = 통일화요소/나중 (동형화 또는 변형요소) = "←" = 저항요소' 를 가리킨다 그런데 위의 우리식 세 공식에 있어서는, 좌/우 양극의 짝 "$_1$U/$_2$U" 각각 이 각각 그 양극과 중앙의 "(S)" 항 사이에 위치한 〈대각선 그림에서도 역시 중앙에 위치한〉 "($_1$ø)/($_2$ø)" 또는 "($_1$1/$_2$1) 〈非ø〉와 짝을 이루고, 그 짝을 위 (1)/(2)/(3)의 "대각선 그림" 의 경우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읽는다 .

다) 이들 세 그림은 원래 "$_ø$언어" 로서의 "(내부)이론" 단계를 표기한 것인데, "$_1$언어" 즉 "(외부)이론" 단계로서의 "형태론" 단계임을 고려하여 수평적으로 읽을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외부 통사론(1)/(2)〈M ⇉ F/F ⇇ M 으로 표기〉" 즉 "외부 언어표현" 의 경우에 그랬던바와 같은, 대각선적 (수직적) 표기를 '수평적으로 읽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위 "(二)" 의 "라)" 항 참조 .

라) 이들 세 그림을 수평적으로 읽음을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1)  ; (2)  ; (3)  *앞 본문의 대각선 그림의 "Ⅰ/Ⅱ Ⅱ/Ⅲ" 의 "C" 및 "E" 그림들 참조

(四)

위 "(二)/(三)" 에서는 우리의 "대각선적 즉 수직적 그림"과 그에 대응되는 "공식"을

'수평적'으로 읽게되는 이유 내지 과정을 설명하고, 그것을 G/M식 "準 또는 半 대각선의 그림" 및 그에 대응되는 "공식"과 비교함으로써 양자의 '위치'를 규정하였다.

이번에는 "형태적 근원"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위치 (*위 "(三)"의 "나)" 참조)에서 그 밑의 '구체단계'로 내려가는 과정을 *위 "(三)"의 "나)" 항에서, 대각선의 네개의 점 위의 짝으로 된 두 숫자 "1/2" = "F 형태/M 의미"를 괄호 "( )"가 없느냐/있느냐로써 동형의 순서 '먼저(근원) = "→" = 통일화 요소 / 나중(동형화 또는 변형 요소)= "←" = 저항요소'를 표기함으로써 그 대각선으로 표시된 '동형의 조직'을 설명한 방식에 따라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우리의 설명의 起点이 되는 (ø적) '형태적 근원'은 *위 "三"의 "나)" 항의 "(1)/(2)/(3)" 대각선 (*앞 그림 Table.(1) 대각선 표기 Représentation diagonale 의 "Ⅰ/Ⅱ/Ⅲ" 각각의 중앙의 "A" 그림 참조)이 아니라, 1↖ ↗2 / 2↙ ↘1 로 표기되는 '중앙'의 괄호안에 "ø"가 자리잡게되는 '매듭 ø'의 대각선이다 그리고 그 대각선의 좌변 (↖ ↘)은 가는 선으로써 '먼저' 위치를 표시하고 우변(↗ ↙)은 굵은선으로써 '나중'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순서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1↖ ↘1 아래(↓)/위(↑)상반되는 방향의 화살표시의 양극에 동일한 숫자 (1/1) 를 배치한 대각선의 이 좌변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의 이하에서 '근원/변형/생성' 항 각각의 외형의 구체적 비교를 위해서는 화살표시(→/←)의 방향에 따르는 '면저/나중'의 순서의 구별 표시 "나중←먼저" "먼저→나중" 과 같은 표기 방식을 취하였으므로, '동형의 순서'의 표기로서의 "먼저/나중" 의 화살표시 표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1(상 = 먼저)→1(하 = 나중)" 은 '형태적 동일성 I(dentité) F(ormelle) (*이하 "I.F."로 통일)을 가리키며, G/M 식 "수평적 準대각선" (*위"(二)"의 "가"항 참조)이 아닌 대각선적 의미에서 수직적 (|)이다 분석하면 '근원'(* "→"로 표기)으로서의 "1→"과 '동형화' 즉 '변형'(*이하 "변형"으로 통일 . "←"로 표기)으로서의 "← ø (영)"으로 분석되는 "I.F."이다

"1(상 = 나중)←1(하 = 먼저)"는 '의미적 차이성 D(ifférence) M(atérielle)' (*이하 "D.M."으로 통일)을 가리키며, 역시 위와 같은 대각선적 의미에서 "I.F" 의 경우와는 달리, 수평적(→)이다. 분석하면 '피동형화' 즉 '생성' (*이하 "생성" 으로 통일 . "→" 또는 "#"로 표기) 으로서의 "1←" 과 '변형' (←) 으로서의 "→ 非ø = 〈1〉 로 분석되는 "D.M" 이다. 이 "I.F" 와 "D.M" 의 '먼저/나중' 순서를 괄호 "( )"의 없음/있음과 "근원(→)/변형(←)/생성(→)" 이라는 용어 (화살표시) 를 사용하여 표시하면 (*주의 이 공식 표기의 "근./변./생." 에 붙는 화살표시는 동형의 순

서의 표기로서의 화살표시임)

"첫째로" "I.F. 근원 = 1→(← 변형 = ø)"/"D.M (생성 = 1→ *좌측의 "근원"과 그 외형이 "1→"과 같이 동일하나, 괄호안에 들어 있으므로 그 실질내용은 좌측의 괄호 안의 "(변형 = ø)"에 해당하는 특징을 가짐) ← 변형 = 非ø〈1〉" (*좌측의 "변형"과 그 외형이 "←非 ø 〈1〉"과 같이 동일하나, 괄호가 없으므로 그 실질내용은 좌측의 괄호 없는 "근원 = 1"에 해당되는 특징을 가짐), 과 같이 "I.F"/"D.M" 의 '외형' 과 '실질내용' 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들어내는 표기를 할 수도 있고,

"둘째로", 위 표기내용을 염두에 두고, '동형의 순서'에 따라서 "I.F. 근원 = 1 →(← 변형 = ø)"/"D.M 변형 = 非ø 〈1〉 → (←생성 = 1)", 와 같이 표기할 수도 있다.

※ 이상과 같이 분석된 "I.F."와 "D.M."은 순수한 '내부성'과 '수직성'(|)을 특징으로 하는 동일하고 단일한 연속적인 点을 이룬다. 이것은 *위 "(三)" 의 "나)" 항의 "(1)" 의 대각선그림 (*역시 앞 본문의 그림(1) $_1$C 대각선 표기의 "I"의 중앙의 그림 "A" 참조)의 좌변 1↖↘2 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부적 수평적 1' 즉 "2"를 '생산'하는 경우와 대조된다 즉 이 "(1)"의 그림 1↖↘2 을, *앞 본문 (*그림 (1), $_1$C 대각선 표기 1) 의 그림의 중앙의 "A" 와 그 상부의 "B"/"C", 그리고 그 하부의 "D"/"E" 로 잡고, 그것을 1↖↘1 즉 "1 (상 = 먼저) ↔1(하 = 나중)과 비교하면

※ "I.F." 의 비교 "1↔1"의 "1→" 즉 $_1$수직적 (= "ø" 적 = 근원적 = $_1$변형적) 변형 = "1.F." 로서의 첫째의 "1" 과, "1→2" 의 "1→" 에 해당되는 변형 = "I.F." 로서의 "B" 와는,' 수평적 (= 외형적) 으로 그 외형이 동일하다 .

※ "D.M."의 비교 "1←1" 의 "←1" 즉 '$_2$수직적(非 "ø" 적 = $_2$변형적) 생성 (#) = "D. M." 으로서의 둘째의 "1" 과, "1←2" 의 "←2" 에 해당되는 생성 = "D. M."으로서의 "C" 와는, 그 외형이 "1" 과 "2" 로 서로 다르다.

※ 위 두 비교의 종합 결론 위 두 비교는 곧 "1↔1" 로 표기된 "I.F." 와 "D.M." 이 위에서 말한 바 대로 "순수한 내부성/수직성을 특징으로 하는 동일하고 단일한 연속적인 "点"으로서의 "형태적 근원" (= $_1$ø변형)임에 반하여, "1↔2" 로 표기된 "I.F." 와 "D.M." 은, 그와는 달리, '근원'(= "ø"적 변형 = $_1$변형)으로서의 "A" (= "I.F." = *위 "1→2" 의 "1→")를 '변형'(非 "ø" 적 변형 = $_2$변형)으로서의 "B"(= "D.M." = *위 "1←2" 의 "←2")를 통하여 "C" (= *위 "I.F."와 "D.M."의 '병치' = "1→2"로 표기) 즉 '생성'에 도달하는 첫째의 변형 = "I.F." 을 통하여, 즉 *위 "C"를 다시 '근원'(= *위 "A" 참조)으로 잡아서, '둘째의 변형' 즉 '생성'

= "D.M." 으로서의 "D" (*위 "B" 참조) 및 "E" (*위 "C" 참조) 로 끝나는 "외부성/수평성을 특징으로 하는 비동일/비단일/불연속적인 点" 으로서의 "非 ø적 = $_1$형태적 근원" 이라 할 수 있다.

2°) : 대각선의 이 우변도 위 1°)의 좌변과 같이 화살표시 "↔" 의 방향의 상반성과 그 양극에 동일한 숫자 (2/2) 를 배치한, "I.F." 와 "D.M" 의 표기로서, 다음의 내용을 지닌다

※ "2(하 = 먼저)→2(상 = 나중)" 은 "I.F." 표시, G/M 식 假 "수평적 대각선" (*위 "1°)" 참조)이 아닌, '대각선' 적 의미에서 眞 $_1$수평적(→)이다. 분석하면 '근원' (→)으로서의 "←2(하)" 와 '변형' (←)으로서의 準 ø = 〈ø′〉로서의 "2(상) → ø′" 으로 분석 되는 "I.F."이다.

※ "2(하 = 나중)← 2(상 = 먼저)" 은 "D.M." 표시 , 역시 위와 같은 대각선적 의미에서 "I.F."의 경우와는 달리, 眞수평적 (→)이다. 분석하면 '생성' (→)으로서의 "→2" 와 '변형' (←)으로서의 "← 準非ø = 〈1′〉" 로 분석되는 "D.M."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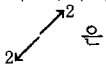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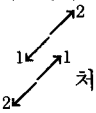
이 "I.F."와 "D.M."의 '먼저/나중' 순서를 *위 "1°)"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표시 하면

"첫째의 표기" ("I.F."/"D.M." 의 '외형'과 '실질내용'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들어낸 표기)

"I.F. 근. = 2→(←변.= ø′)"/"D.M (생.= 2→)←변 = 1′" *설명은 *위 "1°" 해당항 참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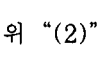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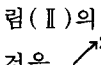
"둘째의 표기" (위 "첫째 표기"내용을 염두에 두고 '동형의 순서'에 따른 표기

"I.F. "근. = 2→(←변. = ø′)"/"D.M. 변. = 1→(←생. = 2)" *설명은 *위 "1°)" 참조).

위와 같이 분석된 "I.F."와 "D.M." 은 *위 "1°)의 "$_1$ø형태적 근원" 에 대하여 2와 짝을 이루는 ""$_2$ø형태적 근원" 이라 할수 있다. 이 "$_2$ø형태적 근원"  은, *위 "(三)"의 "나)" 항의 "(2)" 및 "(3)"(*위 "1°"에서 든 본문 그림 참조)의 우변 즉 "첫째로" "(2)"의  의 경우처럼 외부적 수평적 2′ 즉 "2"를 생산하거나, "둘째로" "(3)"의 처럼 "외부적 수평적 1" 즉 "1" 을 생산하는 경우와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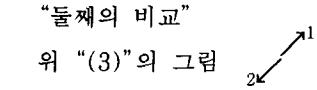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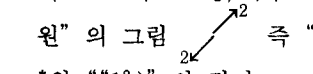
※ 위 "1°)"와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의 비교"

위 "(2)" 의 그림  즉 "1(하 = 먼저) ↔ 2(상 = 나중)" 를 *앞 본문의 그림(Ⅱ)의 중앙의 "A"와 그 상부의 "B"/"C" 그리고 그 하부의 "D"/"E"로 잡고, 그것을  즉 "2(하 = 먼저) ↔ 2(상 = 나중)" 와 비교하는 방식은 위 "1°)"의

"I.F. 의 비교"/"D.M. 의 비교"/"두 비교의 종합결론", 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2(하 = 먼저) ↔ 2(상 = 나중)" 로 표기된 "I.F."와 "D.M."은 "$_2$ø형태적 근원" 임에 반하여, "1(하 = 먼저) ↔ 2(상 = 나중)" 으로 표기된 그것은 "$_2$형태적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둘째의 비교"

위 "(3)"의 그림  즉 "2(하 = 먼저) ↔ 1(상 = 나중)" 을 *앞 본문의 중앙의 "A" 와 그 상/하부 각각의 "B"/"C" 및 "D"/"E" 로 잡고, 그것을 "$_2$ø형태적 근원" 의 그림  즉 "2(하 = 먼저) ↔ 2(상 = 나중)" 과 비교하는 방식도 역시 *위 ""1°)" 와 같다

"위 두 비교의 종합결론" "$_2$ø형태적 근원"의 그림이 표시하는 '위치'는 그대로 "$_2$ø"임에 반하여, 그와 비교된 *위 "(3)"의 그림이 표시하는 바 '위치'는 *위 "첫째의 비교" 에서의 "위치" 즉 "2" 에 이어, "3" 이 된다. 이것은 곧 "ø"적 "형태적 근원" 의 그림의 '위치'가 항상 그대로 "$_1$ø"/"$_2$ø"임에 반하여, 非 "ø" 적 = "1" 적 "형태적 근원"의 그림의 '위치'는 "1 → 2 → 3" 과 같이 바뀌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 바꿈이란 "ø"적 '核'을 非 "ø"적 非核이, Piaget의 말을 빌리면, '모방'(imitation)하고 있으며, 그 '모방'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음을 뜻한다. 이 불변적 "ø"적 핵을 起點으로 하는 非核의 모방의 양식 즉 "同形의 순서"는, 위에서 계속 설명한 바와 같이 (*특히 *위 "四)"의 "가)"의 "1°)"/"2°)"의 공식 참조), "ø"적 핵을 기점으로 그것과 비 "ø" 즉 "1"적 비핵 "1/2/3" 중 "$_1$변형적" 비핵 "1" 이 짝을 이루고, 이어서 "$_2$변형적" 비핵으로서의 "2" 와 "생성적 즉 $_3$변형적" 비핵 "3" 이 짝을 이루는 "동형의 순서의 조직" "I.F. ø〈근.〉 → (←1 〈$_1$변 〉)"/"D.M. · 2 〈$_2$변.〉 → (← 3 〈생.〉)" 이다 (*위 "(四)" 의 "1°)" "둘째 표기 방식" 참조).

※ 이 "ø"적 형태적 근원의 공식이, G/M식 "$U_1 \rightarrow {}_1S_2 \rightarrow U_2$"로 표기된 "假(pseudo-) 언어표현" 으로서의 "假 외부통사론(1)/(2)" 와 구별됨은 이미 위에서 자세히 지적한 바 있다 (*위 "(二)"의 "라)" 참조).

(五)

위에서 관찰한 바를 본 논문 전체와 연관시켜서 다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대각선 · 은 그 자체가 "수평화"(구체화)되지 않으며, 따라서 다른 "외부적" 대각선을 생산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이 대각선은 그 중앙 부분이 "ø" (= 매듭 ø)이므로 그 상/하가 완전히 일치하는 대각선이다. 따라서 이 대각선은 상/하로 半分化(수평화)되지 않는다 (*위 "(二)"의 "가)/나)/다)"항 참조);

계로, 다시 그와 역방향의 (= A 와 B 의 병치) '생성' (= C = "→") 단계로 끝나고 .

"이차적" 으로는 다시 바로 위의 끝 "생성" 단계를 '근원' 으로 잡고 이어서 '변형' 으로서의 D 단계를 거쳐서 '생성' 으로서의 E 단계로 끝나는 '수평화' (=구체화) 의 '묶음' 즉 '최대의 동형의 순서/순환의 조직' 으로서의 "Ⅰ" 이, "ø적 형태적 근원" 으로서의 대각선 의 좌변 즉 ↖↗ 의 좌변 ↖ 에 배치되어, 그 좌변과 그에 배치되는 "묶음" 이 "근원 → 변형" 이라는 "짝" 을 이루고, 이어서, 위 "Ⅰ" 과 같은 원칙으로 작성된 "Ⅱ" 및 "Ⅲ" 각각의 "최대의 동형의 순서/순환의 묶음" 이 위 대각선 의 우변 즉 ↖↗ 의 우변 ↗ 에 배치되어, 그 우변과 그에 배치되는 "묶음" 이 "생성" (= "근원 + 변형" 의 외부적/3차적 병치 〈분절〉) 이라는 "짝" 을 이루게 된다 . 같은 그림의 나무 표기 "$_2$C" 는 "$_1$C" 을 '근원' 으로 잡은 '변형' 즉 '일차적 수평화/분절' "$_1$C" 에 이은 '이차적 수평화' 단계이며, "D" 는 "$_1$C = 근원" 과 "$_2$C = 변형" 의 '외부적 병치' 로서의 '삼차적 수평화/분절' 즉 '생성' 단계가 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을 좌변 즉 ↖↗ 의 ↖ 로 잡고, 그와 역방향의 을 우변 즉 ↖↗의 ↗ 로 잡아서, 그 좌 / 우변에다 각각 "$_1$C"/"$_2$C"를 배치하고, ↖↗ 의 밑에다 "D" 를 배치한 "최대의 동형의 묶음" 이 형성된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위 "二" 의 "가)/나)/다)" 항 , *위 "三" 의 "나)" 항 , *위 "四)" 의 "1°)/2°)" 의 "*위 두 비교의 종합결론" 항 , *앞 본문의 "그림(1) 이론의 순환" 참조) .

× 맨 끝의 "그림 Table.(3)" 은, G/M식 '위치' 로서의 假(pseudo)외부 통사론(1)/(2)" 를 우리의 "ø"적 "형태적 근원" 의 '위치' 즉 "1차 분절 이론 (일반 형태론) 2차 분절 형태론 → 내부 3차 분절 내부 통사론 → 외부 3차 분절 외부 통사론 (1)/(2)" 로 '재 구성' 한 그림이다.